제 338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8년 7월 5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오늘은 맥추감사절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지난 반 년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종일 감사와 축제날로 지내게 된다.

주일 낮 I · II ·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자체 내에서 감사의 행사를 가지며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찬양대의 감사찬양 순서가 있다.

7월 행사게시판

일자	행사
5일	맥추감사절
5일	정기제직회
9일	시민대학 창업과정세미나 수료식
9 - 11일	대학부수련회
16일	시민대학 취업준비세미나 개강
17일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17 - 19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0 - 21일	유년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0 - 22일	중 · 고등부 여름수련회
23일	시민대학 취업준비세미나
26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30일	시민대학 취업준비세미나

교회학교 여름행사 시작

이번주 대학부수련회 필두로

'98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이번 주 9일(목) - 11일(토) 2박 3일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양수양관에서 가지는 대학부수련회를 필두로 8월 첫 주 청년부수련회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한편 유아부는 7월 9일(목) 교회당에서 교사기도회를 갖기로 했으며 소망부는 8월 중 수련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여름행사의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주제 성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장 17절)이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 서	강 사	실시일	장 소	주 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17일(금) - 19일(주일)	교회당(유년부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마28:20)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유년부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마28:20)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0일(월) ~ 21일(화)	교회당(초등부실)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중등부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선교원(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고등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7월 20일(월) ~ 22일(수)	미금선교원(미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대학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7월 9일(목) ~ 11일(토)	한양수양관(남양주시)	예수! 청년! 우리의 새 희망(히12:2, 사60:1)
청년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8월 3일(목) ~ 6일(토)	추양수양관(속초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사랑부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7월 17일(금)	교회당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5:17)

청년부 집회시간변경

청년부 집회시간이 오늘부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주일 오후 2시로 바뀐다. 집회 장소는 202호실.

98년 교사 추가 임명

1998년도 각 교회학교 교사27명이 추가로 임명되었다. <추가 임명자 명단은 4면>

소망부 부감에 왕경래 집사

소망부 부감이었던 김일용 집사가 부산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왕경래 집사가 임명되었다.

일영에 '순례자의 집'

서울교회 교인들이라면 그동안 최소한 한 번쯤은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 기도원에서 기도도 드리고 수양회도 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소원이 현실로 바뀐다.

경기도 일영에 소재한 한 한옥을 교회에서 기도처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순례자의 집'으로 명명된 이 가옥은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한옥집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다. 일영지역은 주변 경관이 좋아 유원지로도 이름난 곳. 특히 순례자의 집은 일영역으로부터 15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와 접해 있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순례자의 집은 전체면적 860m²의 지상에 방2개 짜리 ㄱ자형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내에서의 집회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으나, 이 곳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는 관리/차량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이사야 강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사야 8장 9 - 15절

앗시리아는 동맹군과 합세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대 백성에게 전합니다.

1. 선민의 행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유다 민족,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훤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9절)는 말씀은 앗시리아를 비롯한 아람 군대와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힘을 합쳐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해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필경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는 놀라운 약속과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물며 개인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말과 행실을 삼갑니다(잠 21:29). . 그러나 악인은 자기 죄는 반성할 줄 모르고 매사에 원망만 합니다. 유다를 치려고 하는 동맹군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10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에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2. 선지자의 위로

이사야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자신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민중에게 밀려다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큰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11절).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의 온 백성들이 앗시리아 군대에 청원을 해야한다고 할 때 이사야는 유대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사야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맹약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앗시리아도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대와 타협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놀라는 것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 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선민이 살아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 책임을 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 곧 성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소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오고 승리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 찬송과 기쁨이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면 오히려 넘어지고 걸리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훤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종윤 목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지식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족이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몇 사람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과 애굽 천지가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남은 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추절단상

감사 · 감사 · 감사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전래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날은 무교절로부터 50일 즉,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도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이같이 중요한 날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금년 맥추절은 우리에게 더욱 감회가 깊다. 우리는 홍해작전 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올해에도 연속되는 풍년의 소식도 들려 주셨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내게 유익할 줄로 믿는 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닥친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기보다 이제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오히려 도약과 재건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며 모든 날들이 찬송으로 채워질 것이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지가 되고 성민으로 변화될 것이다.

밀, 보리 추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전천후 감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절기에 범사가 복되도록 범사에 감사하자.

순례길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선물은 모두 하나님께로서 오기에
우리의 모든 것 - 크고 작은 이 모두를 인해
감사드립니다.(롬11:36)

날마다 갖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감사도, 찬양도 돌리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는 일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탓에
기도 때에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 은혜들,
또 우리가 눈멀어 못보는 일상의 '숱한 기적'들.
오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택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시103:2)

오늘 감사의 날에
당신께로서 오는 많은 선물을
새로이 알게 하소서.
기도마다 감사로 가득차며
매일 매일을 감사의 날로 삼는 것이
생명과 풍성한 삶의 열쇠임을 알게 하소서.

홍해작전 승전보고

홍해를 넘어 믿음의 전진을

홍해작전 참모장 홍정호장로

우리 교회는 해마다 6 · 25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홍해작전을 개전하여 성도들 개개인은 물론, 교회와 민족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가르고 건너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번 1998년에도 6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홍해작전'을 은혜중에 끝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교회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승전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힘찬 표어 속에 진군을 시작했던 이번 홍해작전에서 우리 모든 서울교회의 성도들은 연인원 7,965명, 매일 평균 400여명이 모여 3대 행동강령을 실천하며 7개 기도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준비된 강의안을 가지고 '성화'를 주제로 주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생명의 만나'는 은혜가 넘치며, 매일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하였고 매일 새벽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참모진들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체의 피로함에도 열정을 가지고 주옥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테이프로 제작되어 많은 분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홍해작전을 마친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홍해를 건넌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여 약속받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도록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새벽기도에 참석할 것을 결단하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는 감사를, 또한 홍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98홍해작전 승전보고를 드립니다.

1998년 6월 28일

할아버지의 기도

박용헌집사(1교구)

태어난지 백일만에 / 왜아직도 말안할까
지에미는 가버리고 / 백일새벽 기도하리
갖은정성 할애비손
에미손길 비길레나

마흔세째 현충일날
오늘부터 홍해작전
시간맞춰 우유병에 / 일곱가지 소원기도
아기분에 새기저귀 / 빠짐없이 드려야지
겨울감기 여름땀띠
할애비맘 네가아냐

어깨타고 목에달려
애교고집 손자모습
세월가고 이제 네살 / 남은생명 다하도록
걷고뛰고 바쁘지만 / 너를위해 기도하마

컴퓨터, 사무기기, 전자제품, 완구, 의류 등

"재활용품 모읍니다"

바자, 농촌전도, 성경학교, 시민대학에서 활용

사용 가능하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물건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모음과 나눔의 장'이 올해도 열린다.

여전도회연합회에서는 8일(수) I부 예배 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수집한다. 수집된 컴퓨터, 사무기기, 전자제품, 의류 등은 일차적으로 9일(목) 시민대학 수료식에 공개하여 필요한 성도나 지역주민들에게 나누게 된다.

또한 다음 주 개최되는 성경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음과 나눔의 장'에 참여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자신이 활용치 않는 물건은 내어 놓고, 필요한 것과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하는 코너가 마련된다. 따라서 여전도회에서는 아동용품이나 학용품, 도서, 악기, 완구 등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수집한 재활용품은 이밖에도 8월에 있을 농촌전도대 파송 시에 활용될 예정이며 9월에 있을 바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재활용품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98 교회학교 교사 추가 임명자

▷ 유아부: 금용숙 김현주 안성희 오현아 윤주현
▷ 유치부: 박성희 서지영 우서윤 유지연 임영여
▷ 유년부: 김희정 양윤실 정정숙
▷ 초등부: 이근일
▷ 중등부: 나소연 손수연 오세용 원계숙
▷ 고등부: 강민희 김나영 박소영 이영조
▷ 소망부: 김현주 왕경래
▷ 사랑부: 구 홍 안호상 이미연

신간

바울과 역사적 예수

Paul and the Historical Jesus

이종윤 지음
필그림출판사 刊

기독교의 창설자는 누구인가? 바울인가, 예수인가? 만일 예수가 아닌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면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수정을 요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이 아닌 예수가 기독교의 창설자라면 바울신학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바울신앙(신학)의 기원은 헬라주의인가, 근동의 신비주의인가, 또는 헤브라이즘인가? 바울의 교훈과 예수의 가르침엔 공통점이 있는가?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를 알고있었는가? 알았다면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파헤친 저자는 성경신학적으로 역사-비평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정리하고 있다.

〈 신국판 영문 368쪽 / 양장본 〉

순례자 컬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 이름하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처음 맺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켰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여전히 햇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농부들의 피땀흘린 수고와 자연의 재앙속에서도 눈물겨운 고투를 해온 국민 모두의 노고를 몰라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빈손들고 세상에 온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믿는 이라면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다 해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나의 실패가 때로는 성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이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과분한 대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금주 시민대학 강좌 ■

· 점포꾸리기(김재술 소장)
· 경건의 시간(이종윤 목사)
· 서번트리더십(이번생 장군)
· 비디오 시청
· 불황시 매출증대 방안(김재술 소장)
· 성공사례발표(성공점포장)
· 수료식

동정

◇ 김도현 군(중등부, 故 유복환 권사 손자 · 김갑수 성도 아들)은 서울시 남녀수영선수권대회 접영과 배영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했다.

◇ 조남현 군(대학부)은 입대 후 첫 봉급 전액을 새 예배당 건축에 써 달라며 헌금했다

◇ 오늘 점심식사는 이재윤 집사 · 이용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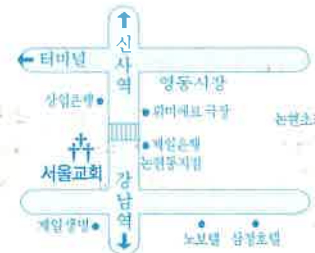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회의 여름행사를 위해
3.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